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가 열리고 첫 곡 'I have a dream'이 울려 퍼지면 관객들은 그리스 지중해 외딴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주옥같이 이어지는 아바의 노래들에 어깨가 들쭉인다. 사랑을 찾는 젊은 소피와 옛사랑의 그림자에 흔들리고,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해낸 도나와 친구들의 우정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광주를 찾는다. 12월 3~5일(5회)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아바 히트 넘버 22곡으로 구성

지난 1999년 런던에서 초연된 '맘마미아'는 전 세계적으로 1억장 넘는 음반을 팔아치운 스웨덴 4인조 그룹 아바의 노래로 꾸민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맘마미아'의 흥행 성적은 눈부시다. 160개 이상 도시에서 3000만명이 넘는 관객이 뮤지컬을 관람했고, 수익금은 2조원에 이른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초연 후 지금까지 100만명 넘는 관객이 '맘마미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지난 2008년 광

“막이 오른다 춤춰라 객석이여”

주에서 한달여간 계속 공연됐었고 지난 2008년 국내에서도 상영된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맘마미아' 역시 46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신드롬을 이어갔다.

'맘마미아'의 가장 큰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뮤지컬 넘버'다. 'Dancing Queen', 'Gimme!Gimme!Gimme!' 'Super trouter' 'Honey Honey' 등 아바의 히트곡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특히 기존 노래의 가사 가운데 단 '한 단어'만 공연에 맞게 바꾸고 모두 원래 가사에 맞게 사용됐지만 절묘하게 스토리와 떨어지는 가사는 '맘마미아'의 또 다른 매력이다.

▲광란의 커튼콜, 또 하나의 즐거움

작품의 배경은 그리스 지중해의 외딴섬.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도나의 스무살 난 딸 소피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어느 날 엄마의 일기장을 훔쳐 본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세명의 남자 샘, 빌, 해리에게 어머니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낸다.

소피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나의 옛 친구들이자 아마추어 그룹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타냐와 로지가 도착하고 그녀들은 옛 추억에 빠져든다.

이번 광주 공연의 캐스팅도 화려하다. 지난 2008년부터 도나 역으로 합류한 최정원이 최고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한국 최고의 뮤지컬 스타 남경주가 도나의 옛 연인 역으로 출연한다. 또 초연 때부터 출연했던 이경미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신에 황현정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맘마미아'의 매력 중 하나는 공연이 모두 끝난 후 펼쳐지는 커튼콜이다. 무대는 물론이고 객석까지 화려한 조명이 쏟아져 내리면 공연 복장을 차려 입은 주인공들이 다시 등장한다. 이때부터 관객들은 콘서트에 온 기분으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티켓 가격 12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호로 보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동

조운성 개인전 19~25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우리가 보는 형상과 기호는 얼마나 본질에 닿아 있을까? '일본의 아우라'가 사라져버린 현대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전시회가 열린다. 19~25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조운성 개인전.

조씨는 이번 전시에서 '씨앗으로 부터'를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보는 상표 등 단순한 기호를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의 혼동을 보여 주는 신작을 발표한다.

나이가 상표와 고가의 명품 로고가 사람의 얼굴 형상이 되고, 태양의 모습이 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구조를 표현했다. 이들 기호는 수많은 확대 재생산하면서 원형에서 멀어져 가는 눈 먼 현대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선, 면, 원 등의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씨앗으로 부터' 연작은 규격화된 기호 이전의 상태인 사물의 원형(씨앗)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송실대 김광명 교수는 "사물의 기능적 역할은 사라지고 기호적 특성만 남게되는 소비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기획초대전 '자아찾기', 신세계 갤러리 주회 '젊



'씨앗으로 부터'

은 예술가의 초상전' 등 굵직한 단체전에 참가했다.

무등회, 라이브회 회원이며 조선대 미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현경 플루트 독주회 21일 문예회관



플루티스트 이현경(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사진) 독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플루트 소나타 4번 F장조', 마르티니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첫번째 소나타', 사라사테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1번 지고이네트라이젠 Op 20' 등을 들려준다.

전남대와 예쁜 노르말 최고연주자 과정, 프랑스 생모르트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했으며 러시아 이르크츠크 필, 동경 프라임 필 등과 협연했다.

현재 예쁜 플루트 앙상블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중이며 아시아 플루트 연맹 이사를 맡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안혜림씨,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묵향 그윽함 넘어 아름다움까지

한국서예협 '탁고개신전'

중국인 서법(書法), 일본인 서도(書道)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예(書藝)라고 칭한다. 문자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학문과 예술의 경지로 여긴 것이다.

묵향 그윽한 서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22~28일 광주 은암미술관 한국서예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서재경) '탁고개신'(擲古開新)전.

이번 전시에는 강영화·강형채·곽영주·김국상·김남기·김삼순·나래군·노정근·박익성·배현영·서재경·유경숙·이용선·임운문·장찬홍·정무남·조성순·주영남·한상운 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글과 한문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재경 작 '담매'

글씨체와 그림, 글씨가 어우러진 현대 서예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의 062-231-529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표문화정보원, 김정은 초청

지역문화원 현황·과제 강연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이 개최하는 문화자원세미나 별빛아리랑구 세번째 행사가 19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의동 D갤러리 3층 커뮤니티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원장을 받은 함토사학자 김정호(73·진도문화원장)씨 초청강연이다.

'지역의 삶과 문화의 기억, 그 터전에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김씨는 진도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씨는 광주일보 향토문화연구소장 등 언론계에 30여년간 재직했으며 함토사와 함토문화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열정으로 '살아있는 전라도 박물관'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문의 062-234-21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의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영화에 빠지다

영화와 연인과 함께!!

상무점 **하남점**

1관	방가?방가! (12세)	1관	심야의FM (18세)
2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2관	검우강호 (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3관	심야의FM (18세)
4관	검우강호 (15세)	4관	슈퍼메드 (전체)/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5관	22블렛 (18세)	5관	방가?방가! (12세)
6관	무적자 (15세)	6관	22블렛 (18세)
7관	해결사 (15세)/심야의FM (18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8관	검우강호 (15세)/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9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9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10관	심야의FM (18세)	10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심야의FM (18세)	최고급관
2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3관	검우강호 (15세)	
4관	22블렛 (18세)	
5관	심야의FM (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9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2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3관	검우강호 (15세)
4관	방가?방가! (12세)/무적자 (15세)/아저씨 (18세)
5관	22블렛 (18세)
6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7관	심야의FM (18세)

색깔있는 영화상객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